

삶으로 말하기 2

“거짓된 경주에서 벗어나기”



마음열기

아래의 내용들을 읽어보고 당신의 솔직한 의견을 서로 나누어 보라.

- 현재 가지고 있는 차에 정이 많이 들었지만 좀더 큰 차가 필요해서 차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차를 사면서부터 차계부를 아주 꼼꼼히 잘 써서 이 차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 차를 팔려고 할 때 사고자하는 사람에게 어디까지 이야기 해 주어야 할까? 그가 묻는 것만 가르쳐 줄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 주어야 할까? 참고로 나는 가격을 많이 받고 싶다. 새차를 사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첫 출근,,출근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다. 그런데 사무실을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출근시간을 30분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한다. 과장님은 1시간이 지나 사야 출근한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상황을 똑같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는 정시에 출근할 필요가 없는 곳이구나, 내일부터는 잠을 좀더 자고 나도 똑같이 해야지 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평소대로 15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 좋을까?
- 학기말 시험! 교수님이 시험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자 점점 교실안에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노트를 급하게 훑어보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초조함으로 머리를 책상에 대고 있다. 시험 시작 직전의 긴장이 강의실을 감싸고 학생들의 손에는 땀이 나오고 신경이 곤두선다. 이 과목의 교수님은 시험을 어렵게 내기로 소문이 난고, 시험전 어떤 소스도 제공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시험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시고 교실 밖으로 나가 버리셨다. 게다가 시험 문제는 대부분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아닌가? 내 가방속에는 시험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있고 공부잘하는 친한 친구가 옆에 앉아있다. 난 어떻게 해야 할까?

▣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나눔

1. 아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 누군가의 정직함 때문에 신뢰가 쌓인 경험이 있나요?

▣ 직장일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정직할 수 있는가?

▣ 고용주의 요구가 옳지 않을 때도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 다른 사람들의 부정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정직한 사람이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어떠한가?

▣ 최근에 정직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갈등을 했고 느낀 감정은 어땠나요?

▣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사회나 조직 속에서 정직함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 정직함을 선택하면서 감정적·물질적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2. 성경은 정직함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래 성경을 읽고 빈칸을 채우고 서로 나누어 보세요.

롬 9: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골 3:9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엡 4:25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약 4:17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잠 19:1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개역개정)

롬 9:1	
골 3:9, 앱 4:25	
약 4:17	
잠 19:1	



적용과 결단

누군가 현대 사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고, 그것을 사기 위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돈을 벌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느라 자신의 일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상한 경주에 참여하는 경주자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외형적 성공과 타인의 인정을 향해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기대와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고, 때로는 자신의 본래 가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직함’은 현실적 효용이나 사회적 인정과 충돌하며, 때로는 ‘융통성 없는 고지식한 태도’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직함은 단순히 ‘법을 지키거나 도덕적 양심을 따르는 것’으로 축소되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직함은 마음과 행동, 공적·사적 삶 전 영역에서 진실되고 성실한 상태를 의미하기에,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직함은 때로 현실과 충돌하며,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듯 보일지라도 정직함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구축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함을 실천하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존중이며,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 주변 사람이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사회적 경쟁이나 외형적 성공에 휘둘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 보여준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되길 바랍니다.



기도